

<b>(사)에너지전환포럼</b> 공동대표 홍종호 임성진 전영환 박진희	<h1>보 도 자 료</h1>	<i>사람·환경·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</i>
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2022. 9. 27.(화)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		
문 의	김창민 전문위원 admin@energytransitionkorea.org		
전 화	02-318-1418	홈페이지	http://energytransitionkorea.org

## “최근 4년간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핫이슈는 전력시장 혁신과 탈원전 정책 논란”

### 에너지전환포럼, 2018~2021년 산자위 국정감사 분석결과 발표

- 에너지전환포럼이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(이하 산자위)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분석 결과, 국회 내에서 ‘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’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  
-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현안과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2018~2021년 국회 산자위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조사하였다. [\(그림1 참고, 3page\)](#)
  - 분석 결과, 그동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‘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’에 대한 질의가 139건(33.7%)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.
  -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’이 31.3%(129건), ‘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’가 13.8%(57건) 순이었다.
  - 그러나 ‘전문가 및 시민 양성’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에 불과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.
  
- 특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▲제도개선 부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탄소배출권거래제, 수요반응(Demand Response, DR) 제도, RPS 및 REC, PPA, RE100 등의 질의가 많았다. [\(표1 참고, 3page\)](#)

-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음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‘탄소저감’ 부문으로 총 30건의 질의가 있었으며, 일반적 탄소저감을 위한 방법, 그린수소, 바이오매스,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반면,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오히려 오프펠릿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.
- 한편,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5사와 산자부에 질의가 집중되었으며,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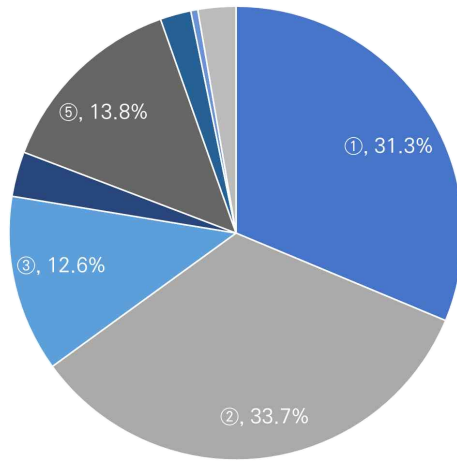
□ 정당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‘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’ 관련 질의였다.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, 현재보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. 📄 (표2 참고, page)

-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한수원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거나, 외압성 여부, 원전 감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- 그러나 원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‘안전관리 강화’ 부문으로 총 23건의 질의가 있었다.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거나, 안전 인력 교육,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된 이슈가 주된 질의 주제였다.

□ 에너지전환포럼의 권상화 연구원은 “국정감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고 평가했다.

- 그러나 “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간 이견을 보였고,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.”고 지적하였다.
- 나아가 “2022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RE100, 에너지부문의 탄소국경세 대응,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회적 난제가 제대로 논의되면 좋겠다.”고 말했다.

[그림 1] 2018~2021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주제별 질의 현황



- 주석:
- 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(31.3%)
  - ②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(33.7%)
  - ③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개선 (12.6%)
  - ④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(3.2%)
  - ⑤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(13.8%)
  - 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(2.2%)
  - ⑦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 양성 (0.5%)
  - ⑧ 에너지복지 등 (2.7%)

[표 1] '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개선' 관련 산자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

세부주제	연도	기관	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
㉠에너지효율 제고 및 제도 개선(16건)	2018	산업부	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분야와 대기업에 편중된 반면 효율 개선 노력은 미흡하므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도입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
㉡분산 발전 활성화 (2건)	2019	산업부	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전원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할 것
㉢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(3건)	2018	산업부	전력 공급예비율이 과다하여 용량정산금 등 전력시장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실시할 것
㉣전기요금 인상 요인 관리 및 원가 공개(10건)	2020	산업부	국민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동의를 구한 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
㉤전기요금 개	2019	산업부	구역전기사업자들의 송전망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
일반 11건			

세부주제		연도	기관	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
편 (21건)	계약변경 2건	2019	한전	▪ 누진제 완화, 계시별 요금제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로 개편할 것
	전력산업기 반기금 3 건	2019	한전	▪ 계약전력보다 장기간 적은 사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계약전력을 낮추어 계약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할 것
	경부하요금 5건	2019	산업부	▪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

[표 2] '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' 관련 산자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

세부주제		연도	기관	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
㉔신규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 폐쇄(3건)	2018	한수원	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제3자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 참여를 포기할 것	
	2020	한수원	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피해액을 추계하고 경북지역 경제적·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	
㉕원전 가동여부 결 정 과정의 적절성 및 탈원전 속도조절(10 건)	2020	산업부	원전 가동여부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, 안전성, 주민수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	
	2020	산업부	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밝힐 것	
	2021	산업부	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으므로, 에너지전환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	
㉖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 검토(8건)	2020	산업부	우리나라의 높은 원전 기술력과 국제적인 원전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탈원전 정책을 검토할 것	
	2020	산업부	초소형원전(SMR)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확대할 것	
㉗원전 비용의 재계 상(4건)	2018	산업부	원전 사고비용을 원전의 균등화 발전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	
	2020	산업부	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및 그에 수반되는 주민수용성 확보비용 등 제반비용을 원전 전력생산비용에 감안	
㉘원전 해체산업 육 성(9건)	2018	산업부	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원전 해체시장에 대비할 것	
㉙원전 안전관리 강 화(23건)	2019	한수원	모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	